

제192회 중앙종회(정기회) 인사말

모든 사물들도 결실을 내보이며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천지가 한 뿌리이며 만물이 나와 한 몸이라는 가르침과 같이 사람의 몸과 마음도 자연의 진리처럼 한해를 점검하며 새로운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처럼 15대 중앙종회도 어느덧 전반기를 원만히 성취하고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4대 중앙종회에 이어 15대 전반기 중앙종회 의장 소임을 맡아 종단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보선스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새롭게 모시는 종회의장스님과 의원스님들 모두가 원력과 신심으로 종단의 현안과 장래를 잘 살피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제33대 총무원장에 취임 후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를 화두로 불교중흥을 위해 사부대중이 함께 걸어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숙원사업으로 회자되었던 사안들을 종책으로 구체화해 집행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지인사고과제도 도입, 사찰 토지처분금의 목적사업기금으로 적립, 승려노후복지제도 확립, 해외특별교구 설립, 시대와 사회에 부응하는 승가교육제도의 전면 개선, 종단 의례의 한글화 등은 어려움을 거쳐가며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예입니다.

반면 초심의 발원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흐름이 바뀐 아쉬운 과제들도 있으나 ‘불교중흥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서원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더욱 구체화하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실천으로 불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현안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매진하고자 합니다.

소외의 시대, 생태위기의 시대, 갈등의 시대입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정보소통은 더욱 자유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자본의 집중으로 중생의 고통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깊이 참구해야 합니다. 시대의 요구에 답하기 위

해 종단 쇄신의 거센 물결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집행부 역시 종단 쇄신과 불교중흥을 위해 온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번 정기회에 쇄신의 일환으로 ‘사찰 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문화재구역 입장료 사찰의 전자발권 시스템 전면 도입과 문화재구역 입장료 예치금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검토되어 온 법안입니다. 더불어 3개 교구본사의 총림지정은 보완 사항을 비롯한 제반 여건을 살펴 여론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기2557년 중앙총무기관 세입 세출 예산안은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는 종단 사정을 고려해 동결기조로 편성하고 쇄신과제의 수행과 불교중흥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구성했습니다. 다만, 자연적인 세출 증가 추세로 볼 때 종단 재정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분담금 현실화 실현을 면밀히 검토할 때에 이르렀습니다.

불교중흥의 발걸음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불교중흥을 위해 한 발 한발 내딛는 발걸음의 흔적은 기록이 되고 다시 역사가 되어 후대에 전해질 것입니다. 그 중심에 중앙총회의원 스님들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의정활동과 수행에 큰 진전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6년 11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